

주목! 이사람



정승 한국 농어촌공사 사장은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통해 겨울철 농촌체험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하대성 익산지방토관리청장은 26일 통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박태선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26일 오전 9시 30분 비아농협에서 열리는 2017 비아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208건 금감원 접수...전년비 38%↑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2015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208건으로 전년(151건)보다 37.7% 증가했다.

이 중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가 통보해준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98.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이 68건, 코스닥시장 130건, 과외상품시장 등 1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9%, 42.9% 증가하고, 44.4%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208건 중 172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이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은 검찰고발·통보 조치했다. 나머지 45건의 사건은 과징금 조치했다.

검찰에 넘긴 104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무방문 AS 시스템' 도입

기아자동차는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할 수 있는 '무방문 A/S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객이 기아차 스마트폰 앱 '큐프렌즈'로 고장 내용, 자동차 픽업 시간과 장소 등을 입력하면 택승 기사가 차를 직접 찾으러 오며 서비스를 마치고 다시 가져다준다.

오는 3월 선보일 예정으로 서비스 결제와 차량 픽업·인도, 진행 상황 확인 등 A/S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고객이 택승기사와 대면하지 않고도 차를 맡길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일회용 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회용 키는 택승기사가 차를 픽업할 때 사용, 서비스를 마친 뒤 배달하면 삭제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열쇠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

/서미애 기자

귀성길부터 차례상까지 앱이면 'OK'

교통수단 예약·운전 도우미 등 다양 연휴 중 가족 나들이 명소검색도 '앱'

설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즐거워야 할 귀성길이지만 막히는 도로와 보채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선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적극 활용해보자.

◇막힌 귀경길 뺨 도로정보 확인

뺨피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무료 내비게이션 앱이다. 특히 애플워치를 지원해 운전 중 크게 방해받지 않고 손목 위에서 바로 정보를 받아 주

행할 수 있다. 서울~부산 주행 기준 30MB의 적은 데이터 소모량을 자랑한다.

국민내비게이션 2.0(무료)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모드를 통해 전면 유리창에 길 안내 화면을 반사시켜 볼 수도 있다.

무료도로, 유료도로 등의 세밀한 설정을 통해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장소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착 예정 시간도 전송해준다.

다음 지도는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정보 등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 정보를 총망라한 지도 앱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CCTV 영상, 사고 및 공사 정보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통합교통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교통정보 앱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공사 및 사고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은 물론 일반폰 사용자들도 1588-2504로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내면 20초 내에 사고나 정체 구간이 있는지 답신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귀성족은 설치 필수

기차나 버스를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족이라면 승차권 예약 관련 앱 준비는 기본이다.

코레일톡4.0은 승차권 예매, 할인상품, 예약내역, 승차권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 객실과 특실은 객실배치도를 보며 좌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열차 도착시간 또는 출발시간을 알려주는 깨우기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고속버스모바일을 통해서도 승차권 예약 및 배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약 변경과 취소가 가능하다. 터미널 이용 안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연휴 가족 나들이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여행 노트' 앱은 고향 주변 관광지, 문화시설, 음식점, 쇼핑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 이용안내, 가는 길, 주변 환경까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이어트·음식상황

기름진 음식과 과식이 두렵다면 '칼로리코디' 앱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를 관리해보자. 체중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다.

병원약국검색 어플인 국닥은 내 주변 병원찾기나 상황별 병원찾기, 의사량 상담하기, 병원 이벤트 모아보기 등 비교적 구체적인 메뉴들로 구성됐다.

/황애란 기자

광주·전남 수출 448억달러 전망

세계수요 회복 영향 전년비 5.3% 상승 기대

■ 무협 광주전남본부 '2016년 지역 수출입 동향·2017년 전망'

세계 경제 회복과 수출 수요 증가로 올해 광주·전남의 수출 규모가 45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가 발표한 '2016년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전망'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대비 7.0% 감소한 426억 달러, 수입은 15.0% 감소한 2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지역 주력 수출품목 부진의 영향을 받았으나 수출 실적 개선되며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가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상

승세와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세계수요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5.3% 늘어난 448억 달러가 예상된다. 또 수입은 11.6% 확대된 30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입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스타트업 세계시장 개척자 과정과 수출 인큐베이팅 단계 기업 발굴하는 씨앗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무역업 근간을 확대하고 성공사례 발굴에 나선다.

광주 글로벌 무역 아카데미와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무역연수 교육 수준을 높이고 해당 국가로의 수출확대 교두보 마련과 제품의 공신력을 높일 예정이다.

오는 9월 광주시 해외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박람회, 해외 유망식품전시회 파견 등 광주·전남 특화브랜드 사업을 통해 수출 장려에 힘쓸 계획이다.

주동필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는 광주·전남이 최근 몇 년간 수출 감소세로부터 성장세로 돌아서며 수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 협상 등 불확실성 역시 높어진 만큼 무역업계가 효과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농업인 생산기업 육성·유통확대

농협광주본부, 32개 기업 210개 품목 판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설을 맞아 농업인 생산기업 우수상품 판매 활성화를 앞선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 생산기업'은 농식품부에서 심사 후 인증한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행사 부에서 심사 후 지정된 마을기업, 농협장 조농업지원센터가 육성 후 심사 추천한 우수 농경영체를 선정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농협광주유통센터 1층 매장에 농업인 생산기업 판매관을 운영 중이며 광주·전남 32개 업체 210개 품목을

판매 중이다. 광주본부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업인 생산기업 우수상품을 범 농협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선도해 갈 계획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소비심리 약화 및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업인을 도우려 농업인 생산기업 우수상품에 응모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5일 중국 은하국제교육과학기술유한회사, (주)둘다리, (주)지구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진흥원-중국 은하교육 업무협약

중국 유통채널 확보·'가온누리' 구매계약 체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25일 중국 은하국제교육과학기술유한회사(대표 남궁은연), (주)둘다리(대표 손영국), (주)지구촌(대표 홍동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우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공동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홍보 협력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척 지원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등이다.

다자간 협약을 통해 중국 은하교육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컨설팅과 현지 유통과 배급분야에 (주)둘다리와 (주)지구촌은 기업들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 분야 지원과 중국 유통망 확보를 위해 협력을 예정이다.

또 (주)둘다리와 (주)지구촌은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해외시장 진출과 구매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남어까지 다양한 언어와 수학을 쉽게 학습할 수 있게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중국 연태시에 위치한 은하교육은 조선족 3세 한글교육기관(은하유치원)으로 중국 내 영유아 교육과 교육콘텐츠 유통 및 보급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주)둘다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어학 교재를 디지털화한 국내 최초의 기업으로 국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주)지구촌은 (주)둘다리의 콘텐츠 유통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다.

전남진흥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해외시장 진출과 구매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KT는 25일 설 연휴를 맞아 KT 로밍 고객의 알뜰한 여행을 위해 일본 현지 쇼핑시설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설 연휴 KT 로밍과 여행하세요"

일본 편의점 등 쇼핑할인 쿠폰 증정

KT(회장 황창규)는 설 연휴를 맞아 KT 로밍 고객의 알뜰한 여행을 위해 일본 현지 쇼핑시설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일본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현지 도착 시 안내 문자(MMS)를 통해 현지 편의점(LAWSON)을 비롯해 백화점(TAKASHIMAYA), 드럭스토어(MATSUMOTO KIYOSHI), 면세점(LAOX)까지 총 4개 브랜드 매장에서 제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휴대폰을 켜고 현지 사업자(NTT DOCOMO) 망을 연결해야 한다. 또 데이터로밍 유료 부가서비스 또는 '데이터로밍 완전 차단(MMS이용)' 무료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만 안내 문자 수신 가능성이 때문에 KT 고객은 해당 쿠폰 사용 시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 부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인 쿠폰은 한중일 통신사업자 협의체인 SCFA를 통해 KT가 일관된 현지 제휴 혜택이다. 보다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쿠폰 종류 및 쿠폰 제공 국가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를 찾는 KT 로밍 고객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오는 2월 18일까지 올레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톨택을 돌리면 매일 최대 5,000원까지 롯데인티넌트세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톨택을 돌리는 고객은 해외 출국 전까지 쓸쓸하게 적립금을 모을 수 있다.

KT 유무선사업본부 박현진 본부장은 "2017년 첫 번째 명절 설 연휴를 맞아 해외를 방문하는 고객님의 알뜰한 여행을 위해 제휴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 감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http://roaming.olleh.com), KT 로밍센터(1588-0608), KT 로밍센터(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및 부산항만)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애란 기자